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P. 320 B해

제1독서(출 에 24, 3-8)
제2독서(히 브 9, 11-15)
복 음(마르 14, 12-16, 22-26)

숲 정 이

발행인	법 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상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한 솔 밥을

먹는 우리가...

조 정 오 신부

몇년 전 신문에 이색적인 부부싸움에 대한 기사가 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의 어떤 한 부부가 어린 딸의 특점 이식 수술을 위해 서로 자기의 살을 빼 주겠노라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온 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주는 사랑보다 더 철저하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내 것으로 가장 완전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쁜, 너무나 예쁜 사과를 먹어치워야 속이 후련합니다. 남이 갖지 못하게 내 것으로 하고자 함이지요. 너무도 인류를 사랑한 그리스도는 인류를 먹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아니 온전히 하나되는 사랑의 극치(極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내주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백혈병(白血病)으로 갈딱거리는 귀여운 딸의 마지막 생명을 안타까워하는 엄마는 눈썹짙할 사이, 자기의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뚝뚝 떨어지는 선혈(鮮血)을, 힘없이 일자로 다문 딸의 입을 벌리고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느님도 감동하셨는지 그 어린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이 선혈은 인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이 사랑의 잔치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옛말에 '한 솔 밥을 먹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신 음식을 먹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식사는 의미가 없으며, 잔치에의 참여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 전 10, 17) 내가 먹은 빵도 그리스도요, 내가 마신 피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요, 사랑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오른 손이 왼 손을 자꾸만 때리고 배어 뚫으려 한다면 이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아니 나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 미친자의 행위와 다를 바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지금부터-그리스도를 받아 또 신 그 순간부터-이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디아 2, 20)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우리 몸을 합부로 다뤄서 그리스도가 욕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잔치에서 주거나 받거나 먹고 마신 잔치 음식인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고 우리는 통성명(通姓名)을 했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남이 아니라 한 몸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을 역행(逆行)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 자체가 모순입니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요한 6, 54)

(어리 창인동 보좌신부)



忠·孝·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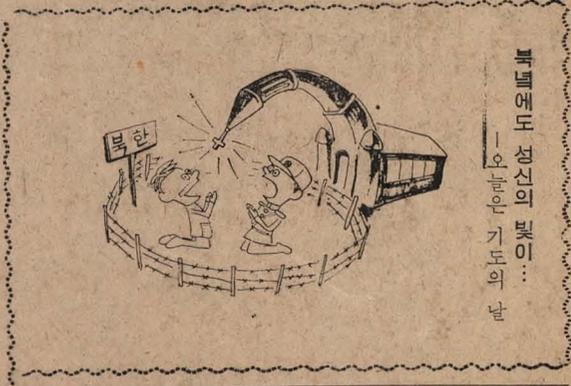
요사이 우리나라에는 <새마음>운동이 번지고 있어 직장이나 학교에는 새마음회가 조직되고 있다. 이미 각도에서는 새마음갖기 도민 쉼기대회도 치뤘다. <새마음>운동이 한창일 때, 이에 앞서 <새마음>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국 신부가 있었다. 형식에 흐르는 외적인 행사보다도 근본적인 정신개조 운동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비록 외국인의 말이었지만 경청할만한 의견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새마음 운동이 시작되어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말로나 걸치려 행사로만 하지는 말자.

<새마음>운동은 <충(忠)·효(孝)·예(禮)>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이렇게 알아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忠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여 국민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는 국민복(國民福)을 위해 생명(身命)을 다해야 한다. 孝라 함은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존경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禮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성실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다.

<충·효·예>는 그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주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일방통행적인 <충·효·예>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랫사람만이 <충·효·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 말마디는 옛것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忠이라는 말을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덕목(德目)으로 삼았던 사군이충(事君以忠)으로 알아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넓게 생각해서 君을 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강변(強辯)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전배하면서 소리높이 외쳤다는 <충성>이라는 말마디가 왜 어설픈게 들릴까?

숲 정 이 산책



북녘에도
성신의 빛이:
-오늘은
기도의 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神을 받아 들이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방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2일, “동부 유럽 공산국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7개월전에 떠났던 모국 폴란드를 방문하고, 10일 바티칸에 귀환했다.

□ 자리값 65달러

교황을 환영하고자 하는 폴란드인들의 마음은 부풀었고, 열성은 뜨거웠다. 폴란드인의 월(月)평균 수입이 145달러라는데, 교황이 지나가는 연도에는 구경하기 좋은 자리값이 65달러라는 광고가 당국의 당부에도 아랑곳없이 나붙었다.

□ 민요를 부른 교황

교황은 준비된 검은 피아트 리무진 승용차 대신으로 평평한 대형 트럭을 타고 연도에 늘어선 200만 폴란드인의 환영을 받았다. 1시간이나 수천명의 젊은이들과 민요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황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 도로포장과 울타리 단장

폴란드 정부는 교황의 방문을 자국민(自國民)의 귀국으로 보지 않고 외빈(外賓) 방문으로 간주하여 도로포장 울타리 단장, 주택 페인트칠 등을 서둘렀다. 사고방지를 위해 수만명의 경찰과 군대를 특수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지방민들의 수송수단에는 인색했다. 정부당국은 지나친 환영이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하는 국가정책에 상치되는 것”이라고 우려하여 “공식적이고 비교적 냉담한 환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공산국가이기는 하지만 전국민의 93%가 천주교 신자인데에 폴란드 정부당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 할거하라!

교황은 폴란드 정부와 가톨릭교회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교황청이 폴란드 정부와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의함과 아울러, 국제평화의 기본요건으로 각국의 생존권과 자결권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소련의 동부 유럽 지배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신자들에게는 “교회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소명을 수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호소하며, “종교를 포기하라는 무신론자들의 요구에 항거하라”고 힘주어 당부했다.

□ 외지(外紙)의 논평

—학생들은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교회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 보다 많은 교회의 자유를 주장한 교황의 연설은 폴란드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교회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역설해서 주목을 끌었다. (美 뉴욕 타임즈)

—공산주의 통치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 인간의 비판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한계를 알게 했다. (美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폴란드 교회와 국민의 기독교 정신은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더 공고해졌음이 분명하다. (英 데일리 텔리 그래프)

—아름다운 이번 방문결과는 교황이 폴란드 공산당을 정복한 것으로 끝날것 같다. (佛, 피가로)

—주교단 앞에서 행한 연설은, 바티칸의 동방정책이 동부 유럽 교회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일관된 추구였다. (佛, 프랑스파르)



교황 「바오로」 2세가 「폴란드」 방문 2일째를 맞아 3일 「그니에즈노」를 「게바르레보」에 모인 환영 군중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 지하(地下) 신학교

400만 소련 가톨릭의 총본산인 리투아니아와 교황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은 폴란드와의 거리 400km뿐이다. 마음내키는 캐롤라인 당장 달려가 교황을 알현하고 그 동안의 박해와 억울함을 호소해 보겠지만, 소련의 종교적 상황에 따라 더욱 굳어진 국경은 리투아니아인의 절실한 소망을 풀어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폴란드에서 중계되는 교황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선명하게 보기 위해 폴란드 국경지역으로 모여 들었다.

리투아니아 교도들에게 종교적 투쟁과 신앙의 상징으로 숭상되어온 교황은 지난 5월 리투아니아의 스테파나 비시우스 추교를 추기경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큰 격려와 감동을 주었다. 스테파나비시우스 추교는 20년전 수도 빌니우스에서 추방당한채 종교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리투아니아에는 소련에서 유일한 신학교가 남아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도 7명의 사제를 배출했다. 소련 당국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이 지하신학교에서 배출된 사제들은 현재 성직에 종사하면서 비밀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리투아니아 가톨릭 교도들의 마지막 희망이며 종교자유의 교두보(橋頭堡)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 全文 外信 綜合.

◆ 3년동안 뒷손울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동 암 (모예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인권 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

-11일 김제에서, 400여명 참석



지난 11일 김제 천주교회에서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이 성황리에 끝났다. 4백여명이 성당을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의 제1부는 <인권강연회>로 그 막을 올렸다. 농촌지역에 알맞게 「농민과 인권문제」를 다룬 이종창 신부(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국 지도신부)의 강연은 듣는 사람들의 폐부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강연 도중,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웨치는 50대 촌노(村老)의 한마디, 심장을 뚫고 나온 웨침을 청중들은 우렁찬 박수로 동의해 주기도 했다. 한국의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신부는 경상도 특유의 억양으로 신랄하게 꼬집으며, 농업정책의 부재가 농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고 지적했다.

제2부에서는 김지하 문학의 밤이 열려, 김지하에 대한 소개와 그의 시 4편을 들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김지하(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문정현 신부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김지하의 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뿐더러, 문학적인 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김지하가 당하는 고통이 비롯되는 한국적 현실을 지적하여 청중들의 공명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청중의 3분의 2를 넘는 이들이 젊은이들이고, 20여명의 사제들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참석하는 일이다. 특히 신자가 아닌 젊은이들이 청중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펍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하겠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김제본당 사도회와 두 분 사제의 면밀한 사전준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원로 사제(김반석·김종택)의 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체회, 6분 수녀님 종신 서원

-14일, 노송동 성당에서



성체 수녀회(총장 차미카엘라 修女)는 지난 14일 오전11시 노송동 성당에서 종신 서원식을 가졌다.

여섯 분의 수녀가 온 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서원식에서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은 “나 하나 개인만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봉헌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당부하셨다.

노송동 성당을 꽉 메운 가족들과 신자들,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은 종신 서원에 임하는 수녀님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 하얀 토끼가 아직도 집에 있으면 본당에 갖다 내세요.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을 마무리 집시다. 토끼를 그냥 집에 두지 마십시오. 정성껏 봉헌하십시오.

요심이(307) 김병호



사진자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매타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증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신일선풍기!

신일선풍기는 (금, 은, 시계)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옥교옆

☎ ③ 3252

漢 文 강 의

□ 한시·명언·한문·상식
고사성어·3,000자 단기완성 지도

□ 고급반: 대학·논어·맹자·중용
오후 2시, 8시

□ 아동반: 오후 4시·5시

전주 한문 학원 2-7071

<전주우체국 후문옆·신우라사 2층>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계)

☎ 2-3301 (자택 2-8548)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분 상담환영!

신세계 시계점(신장개업)

금·은·보석·각종시계

<신용판매, 책임수리>

①계(조직)판매환영 ②월부, 납품

③교우, 학생 특별할인

장소: 동문사거리 전화: ②6718

장 상 준 드림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인권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 문학의 밤...25일(월) 오후 8시, 전동성당에서
※ 주최...전동천주교회, ※ 후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 농촌사목을 위한 성직자 세미나...18일(월) 오후 1시~20일(수)
4.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17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에서
※ 각 꾸러미 단장은 오전 11시 전동성당으로 오세요. 상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5. 중고등 연합회 1차 회장단 회의...24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공문 참조)
6. 완구 수집...교구 인성회에서, 시골 공소 어린이를 위해 6월20일까지 장난감을 수집합니다
6. 사제양성후원 토끼를 각 분당에서는 분배하신 숫자, 회수된 숫자를 교구 평형 사무국에 보고해 주세요
7. 여자 쟀 모임 : 17일 오후 2시 성심여고에서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복
보좌 신부 정 태 립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 17일(일) 공식미사 후
 2. 분당 주보축일 : 22일(금) 예수 성심축일
분당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예수 성심상(5만2천원) 기증 : 감사합니다
 4. 소지품 조심하세요(미사때)
 5. 미사중에 금정이를 읽지 맙시다
 6. 화상회 : 17일(일)학생미사 후(강당)
- 지난주 봉헌금 : 218,59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험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부녀주일 : 10시미사 후, 할머니회, 어머니회
 2. 꼬미씨움 회합 : 오후 2시(L.M회합실)
 3. 축! 중·고생 체육대회 : 2위(8개 분당중)
 4. 노력봉사 : 중·고생 학생회 전원
일시-6월 17일 오후 2시
지참물-삼·팬이
 5. 감사 : 성당 제대용, 선풍기 2대 기증
6만-최바울라(정희)
감사헌금 : 금일봉 12만-김벨다(효덕)
 6. 수요기도회 : 20일 밤 8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87,05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성 립

1. 성우회 웰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웰레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들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요일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신중조합 웰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아직 금년도의
교무금을 신입하지 않는 가정은 언제는지요? 지
난해의 교무금도 깨끗이 완납하셨는지요?
- 지난주 봉헌금 : 113,12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감 노

1. 성모회 웰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요안회 웰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교황주일 : 6월 24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4. 지난주 신축기금 납입액
박익순(5만원), 이기철(10만원), 김지순(3만원), 홍
정례(1만원) 계 : 190,000원
성당신축기금 납부기일 단축운동에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63,29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유
사도 회장 유 제 상

1. 기증도서 : 세계 아동전집 11권
이성환 바오로형제 감사합니다
 2. 수고하시겠습니다
전례부장-이범수
 3. 분당운영 도움시다
빌린 봉헌금 납부하여 어려운 분당살림 도움시다
 4. 29일은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행사-29일 축하식 : 7월1일
 5. 주일학교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린이 신앙은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2시교리, 3시미사
 6. 대학생 목상회 마칩
많은 기도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0,770원 교무금 : 119,7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총

1. 꼬미씨움 : 오후 1시30분-서학동 성당
 2. 예비자교리 : 학생-토(오후 4시),
청년-수·목(저녁미사 후)
일반-일(10시미사 후)
 3. 미사시간 변경
토-5시30분(특전미사)
일-5시30분·8시30분·10시·오후 8시
 4. 엠프 회사를 감사합니다
김용옥·장준수(10,000원), 최성용·이오델리아
(5,000원)
- 지난주 봉헌금 : 250,469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박 성 립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예비자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히데레사씨 지도
수요일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2. 십계 영화상영 : 7월 1일 저녁9시(많은 환람바람)
 3. 축! 우승 : 4지구 단합 체육대회 종합우승
 4. 미사에 오실때 성경·기도서·공용체 성가집·가톨릭
성가집 꼭 지참하세요
 5. 교황주일 특별헌금 : 6월 24일
나누어 드린 봉투에 정성으로 담습니다
 6. 공동체 목상회는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기증 : 선풍기 3대-부녀회, 김성원-1대, 익명-1대
- 지난주 봉헌금 : 199,82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립

1. 사도회 : 금일 저녁미사 후
 2. 구역미사 : 23일-에그린
 3. 분당 자체교육 : 22일(금), 29일(금), 저녁 8시
 4. 예비자 모집 : 성탄때 영세받으실분 수녀님께 연락하
세요
 5. 중·고생교리 및 미사 : 중·고생들의 참여가 극히
소극적입니다. 좀더 성의를 가집시다
 6. 어린이교리 및 미사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7. 성령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성령기도회가 있음
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465원